

농어촌전형

도심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별전형

‘읍·면’에 거주한다면 주목!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도움말 김두령 교사(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부속무학고등학교)

농어촌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전형입니다. 대학에 따라 전형을 따로 두지 않고 기회균형전형 혹은 고른기회전형의 지원 자격에 농어촌 학생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지원 자격은 6년간 농어촌 지역의 중·고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본인과 부모가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유형Ⅰ과 학생만 해당 지역에서 12년간 거주하며 초·중·고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형Ⅱ로 구분됩니다. 이때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하므로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기간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자는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했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전형이 일반전형보다 유리한가요?

농어촌전형은 비슷한 교육 환경의 학생들끼리 경쟁하고 대체로 합격선이 일반전형보다 낮아 농어촌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지원 전 개인의 경쟁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발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학이 많고, 해마다 지원자층의 성향과 성적대가 달라 전년의 합격선을 참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북 무학고 김두령 교사는 “재학 중인 학교의 합격생 사례를 바탕으로 지원을 결정하길 권한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진 경우가 많다. 같은 지역의 교사끼리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을 공유하기도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농어촌전형에 합격한 후에는 이사해도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전형의 지원 요건은 중학교(유형Ⅰ) 또는 초등학교(유형Ⅱ)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